

##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

-- 駿河台(스루가다이)大學의 경우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Record Management Science Education

- with focus on the Faculty of Cultural Information Resources, Surugadai University; Evolving Program, New Connections. -

金 容媛(Yong-Won Kim)\*\*

### ◁ 목 차 ▷

1 序 論	3.2 學部教育課程의 構成
2 文化情報學과 文化情報學部	3.3 學部 資格과정(司書, 學芸員)
2.1 記録管理學·文化資源學·文化情報學	3.4 大學院 文化情報學研究果
2.2 教育組織으로서 文化情報學部	4 今後的의 課題와 展望
3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の 教育內容	<參考文獻>
3.1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の 概要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기록관리학 교육의 현황을 개관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분야의 급속한 성장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록관리학 교육의 목적은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전문가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록관리학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문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에는 교육과 실무 훈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점은 흔히 이론과 실제의 대비로 표현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및 기술적 현실의 합류점이 양자에 모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기록관리학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검토한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다양한 형태의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분석하되 일본 최초의 종합적인 대학 수준 프로그램인 스루가다이대학교의 학부프로그램에 초점을 둔다.

스루가다이대학교 문화정보학부는 정보학 분야를 통합한 새로운 학부로서 다양한 문화정보자원관리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기 위해 1994년도에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archival science, records management, 박물관 학예직 및 사서직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학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 이 논고는 2000년 7월 4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일본, 스루가다이(駿河台)대학 문화정보학부 교수.

\*\*\* 본 학회지의 본문 서술은 국문의 경우 한글(漢字)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 논문의 경우 필자가 일본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금번에만 국한하여 예외로 국한문으로 수록함.

것이다.

학부에는 두 개의 학과가 있고 각과에는 두 개의 코스가 있다;

문화정보학과: - 영상정보코스, - 관광정보코스

지식정보학과: - 지식커뮤니케이션코스, -레코드·아카이브코스

전체 교과과정의 구조는 역시 기본과목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조직된다.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수강하는 오리엔테이션과목들은 전문교육의 입문이 되며, 대학에서의 기본적 학습 연구방법을 배운다. 1학년과 2학년 동안 학생들은 전문화를 위한 필수단계로서 기초과목과 기간과목들을 수강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주제의 과목들이 개설된다. 개설코스수는 약 150개에 이른다. 3학년부터는 자신의 주전공에 해당하는 특정 코스를 시작하며 세미나와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게 된다.

각 학과에 속한 코스들은 2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개설된다. 그러나 두 학과 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으며 졸업필요조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과에 관계없이 3·4학년 세미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화정보학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기초과목군(예: 문화정보사회사, 문화인류학, 과학사, 행동과학,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34학점, 외국어에서 16학점(영어 10학점 포함), 정보처리에서 14학점(이론과 실습 포함), 그리고 자신의 전공코스에서 6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록관리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와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한다; - 관련 분야 및 유사 프로그램과의 결합 및 조화, - 교과과정 개선, - 교과서 부족, - 유능한 교수의 부족, - 졸업생의 취업문제

정보서비스가 점점 더 복합, 통합, 멀티미디어화 되어감에 따라 정보전문직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키비스트, 레코드메니저 및 박물관 큐레이터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생존에 필수적이 될 것이다. 더욱 정보화되는 사회에서 변화를 견디려면 문화기관 내 모든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가 요구된다. 미래의 동료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문직 간에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ords management science education in Japan,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rapid growth of this field while noting some of its significant issues and problems.

The goal of records management science educat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information services and to assure an adequate supply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Because records management science programs prepare students for a professional career, their curricula must encompass elements of both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This is often expressed as a contras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 confluence of the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realities of the environment where the learning takes place affects both.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trends of records management science education in Japan. It also analyzes the various types of curriculum and the teaching staff of these institutions, with focus on the status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at Surugadai University, the first comprehensive, university level program in Japan.

The Faculty of Cultural Information Resources, Surugadai University, a new school toward an integrated information disciplines, was opened in 1994, to explore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management diverse cultural information resources. Its purpose was to stimulate and promote research in additional fields of information science by offering professional training in archival science, records management, and museum curatorship, as well as librarianship. In 1999, the school introduced a master program, the first in Japan.

The Faculty has two departments and each of them has two courses:

Department of Sensory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 Sound and Audiovisual Information Management,
- Landscape and Tourism Information Management

Department of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 structure of the entire curriculum is also organized in stages from the time of entrance through basic instruction and onwards. Orientation subjects which a student takes immediately upon entering university is an introduction to specialized education, in which he learns the basic method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study. During his first and second years, he arranges Basic and Core courses as essential steps towards specialization at university. For this purpose, the courses offer a wide variety of study topics. The number of courses offered, including these, amounts to approximately 150. While from his third year onwards, he begins specific courses that apply to his major field, and in a gradual accumulation of seminar classes and practical training, puts his knowledge gained to practical use.

Courses pertaining to these departments are offered to students beginning their second year. However, there is no impenetrable wall between the two departments, and there are only minor differences with regard requirements for graduation. Students may select third or fourth year seminars regardless of the department to which they belong.

To be awarded a B.A. in Cultural Information Resources, the student is required to earn 34 credits in Basic Courses (such as, Social History of Cultural Information, Cultural Anthropology, History of Science, Behavioral Sciences, Communication, etc.), 16 credits in Foreign Languages (including 10 in English), 14 credits on Information Processing (including both theory and practice), and 60 credits in the courses for his or her major.

Finally, several of the issues and problems currently facing records management science education in Japan are briefly summarized below:

- Integration and Incorporation of related areas and similar programs,
- Curriculum Improvement,
- Insufficient of Textbooks,
- Lack of qualified Teachers,
- Problems of the employment of Graduates.

As we moved toward more sophisticated, integrated, multimedia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professionals will need to work more closely with colleagues in other specialties. It will become essential to the survival of the information professions for librarians to work with archivists, record managers and museum curators. Managing the changes in our increasingly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demands strong coalitions among everyone in cultural Institutions. To provide our future colleagues with these competencies will require building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in and across the information professions and across national borders.

## 1 序 論

高度情報化社會에 있어서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官廳이나 企業에서 생산되는 文書類의 증대와 도서·잡지학 등의 출판물의 증대 등 情報資源의 양적 증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의 양적 증가에 따라 정보장원을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情報資源管理者의 必要性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情報公開法에 制定, 製造物責任法의 施行, 品質管理에 관한 國際規格의 普及 등에 따라 官廳이나 企業에 있어 文書·記錄의 管理가 이전보다 더욱 重要해졌고, 또한 電子形態의 記錄이 普及됨에 따라 모든 組織·機關에 있어 文書·記錄의 組織的인 管理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文書·記錄 管理의 理論 및 技術에 關해서 歐美에서는 Records Management 라는 確立된 專門領域이 存在하고 있고, 大部分은 大學院 과정에서 專門家와 研究者를 養成하고 있다. 實際로 이러한 專門家들이 官廳·企業에 있어서 文書の 作成, filing, Data Base화 및 厂史的인 資料의 保存·管理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活動을 하고 있다. 이러한 專門家들을 「Archivist」·「Records Manager」라고 하나, 現在 日本에 있어서 이러한 人材들을 專門的으로 育成하는 高等教育機關이 결여되어 있고, 教育과정 및 制度도 確立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情報資源의 管理·保存·提供에 關連된 職種으로 「圖書館員」·「博物館員」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圖書館情報學·博物館學이라는 學問의 背景을 가지고 있으나, 情報資源의 管理·保存·提供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Archivist」·「Records Manager」·「博物館員」·「圖書館員」 사이에는 必要한 知識·能力의 面에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또한 Computer技術의 發達 특히 data base技術의 發展에 따라 이들 職種의 共通되는 部分은 앞으로 더욱 增加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또한 이들 情報資源의 管理者에 대한 社會的 要請은 文書·記錄의 電子化와 data base화, multi-media 와 Internet의 發達에 따라 더욱 增加될 것이다.

現在 日本에는 圖書館에는 ‘司書’, 博物館에는 ‘學芸員’이라는 專門職이 一応 制度的으로 整理되어 있으나, 文書館의 專門職은 아직 그 制度가 整理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司書에 관해서는 「圖書館法」 및 「圖書館法施行規則」에 의해 司書의 講習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을 大學에 2年 以上 在學하고 62單位(學點) 以上을 取得한 者로, 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必須科目 12科目・18單位, 選擇科目 2科目・2單位로 計 14科目・20單位 以上을 取得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현재 圖書館情報學 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大學(2年制 短期大學 포함)은 약 270 大學으로, 그 중 대부분은 圖書館法 施行規則에 의한 「20單位」의 司書資格의 教育課程을 提供하고 있는 狀況이다. 學科 單位의 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곳은 慶應大學(1951年), 圖書館情報大學, 愛知淑德大學의 3校가 있다. 여기에 전공과정을 가진 東洋大學, 駿河台大學 등을 합하여도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없겠다. 碩士(修士)課程은 6校, 博士과정은 慶應大學, 東京大學, 京都大學과 圖書館情報大學은 2000年 4월에 開設되었다.

學芸員에 관해서는 「博物館法」 및 「博物館法施行規則」에 의해 필수과목 8科目・12單位를 修得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現在 學芸員 자격 取得을 위한 博物館學講座는 2年制 短期大學을 포함하여 239大學(그 중 國立大學은 56校)에 開設되어 있다.

실제로 이들 大學 등에서 司書과정・學芸員과정을 수료하여 資格을 取得하여도, 圖書館이나 博物館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는 制限되어 있다.

文書館 관계의 Archivist 養成 教育은 1987年 12月, 公文書館法 制定을 계기로 관계기관, 단체가 研修會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國立公文書館은 1988년부터 「公文書館等 職員 研修會」를 國・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을 對象으로 始作하였다. 同年, 國立國文學研究資料館 史料館은 종래의 近世史料 취급을 講習會를 擴充하여 史料管理學研修會(Seminar on Archives Administration)를 開始하였다. 1992년에 企業史料協議會와 法政大學이 공동으로 「Business Archivist 養成講座」를 開設하여, 企業의 文書館, 資料館, 社史編纂室의 擔當者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國立公文書館은 1998년에 「公文書官等 專門職員 養成 과정」을 始作하였다.

學部나 大學院에서 歷史學 또는 學芸員 과정 등의 일부로 「文書館學」・「史料管理學」 등을 講義하고 있는 大學은 お茶の水女子大學, 國士館大學, 富山大學, 學習院大學 등이다. 大學에 있어서 「Archives」의 專門과정으로는 1994年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 知識情報學科에 「Record. Archives 코스」가 開設, 1999년에는 大學院 修士과정이 開設되었다. 最近의 注目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2000年 4월에 東京大學 大學院人文社會系 研究科에 「文化

資源學研究專改」의 新設로, 앞으로의 成果가 期待되고 있다.

## 2 文化情報學과 文化情報學部

### 2.1 記錄管理學 · 文化資源學 · 文化情報學

日本記錄管理學會의 初代會長으로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の 初代 學部長이었던 安澤 秀一教授(현재 大學院 文化情報學 研究科長)는 學門으로서의 記錄管理學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記錄管理學을 組織體記錄으로서의 記錄을 有效하게 作成·保管·加工·蓄積·再利用하는가에 關하여 想定할 수 있는 모든 것을 體系化하는 理論과 實際에 關하여 考察하는 學文分野라고 한다면, 存在하는 組織體의 經營管理의 모든 場面과 空間 그리고 時間的 展望(歷史)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既存의 여러 學問分野의 知識體系의 構造에 얽매이지 않고, 記錄管理學으로 獨自의인 構造와 體系를 만들어가는 努力이 必要하다. 말하자면 複合의인 學問의 學際的인 交流 안에서 積極的으로 記錄管理學의 基本·中心이 되는 部分을 構成해 나가야 한다.

고 說明하고 있다. 또한, 安澤 教授는 文化情報學을 “모든 情報 중 蓄積에 의해 利用價値가 발생하는 情報(情報資源)에 關하여 研究하는 分野”로 定義하고, 文化情報學의 英文 명칭을 “Cultural Information Resources”로 學文의 對象을 文化情報資源으로 明示하고 있다.

情報資源에 關한 研究로는 情報資源의 生産·蓄積 과정·保存, 情報資源과 社會, 情報資源 關한 法制 및 論理 등 理論的 研究와 組織化·保存 및 情報 關한 産業 등에 關한 實際的인 研究가 있다. 그러나, 情報資源은 研究對象으로 하는 文化情報學은 새로운 學問分野로서 學問으로서의 體系 등은 아직 確立되어 있지 않고, 또한 社會的인 認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文化情報學은 複合的인 學問分野로, 中心이 되는 分野는 「圖書館情報學」·「博物館學」·「記錄管理學」등을 들 수 있다. 情報資源의 組織·管理 등의 理論에는 圖書館情報學의 成果

를 利用할 수 있다. 情報資源의 性質 및 社會的인 영향 等에는 「文書館學」·「博物館學」·「記錄管理學」 등이 그 基礎가 되겠고, 각 분야에 共通되는 點은 Computer에 의한 處理와 利用이다. Computer를 利用한 情報資源의 生産·蓄積·提供·利用의 Approach가 文化情報學 연구에 있어 基本的이고 불가결한 要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文化情報學 教育의 目的을, 安澤 教授는 「情報 mediator」를 育成하는 것으로, 資源으로서의 「情報」와 「利用者」, 兩者의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情報管理·流通의 專門家」의 넓은 意味로 說明하고 있다.

文化情報學部 設置 취지서에 의하면, 「情報 mediator」의 特性으로, (1) Service Oriented, (2) Database를 作成할 수 있는 能力, (3) 情報資源의 所在를 確認할 수 있는 能力, (4) 情報資源을 檢索·提供할 수 있는 能力 등이 必要하다고 說明하고 있다. 또한 「情報 mediator」의 職場으로, 文化施設로서의 國立公園, 景觀施設, 博物館, 美術館, 圖書館, 文書館 등과 官廳·企業 등에 의한 記錄管理, 映像·音樂情報資源의 DB化와 檢索分野, 國際的인 情報流通 및 서비스 分野 등을 들고 있다.

文化資源學은 2000年 4月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 研究科에 新設되고, 研究 전공의 名稱으로 가장 새로운 學問이라고 할 수 있겠다. 同 大學의 案內資料에 의하면, 人文社會系 研究의 既存分野의 研究에 있어 共通基盤인 多種多樣한 文化資料(文學, 文獻, 歷史, 畫像·形像, 考古, 古物, 文化調資 및 文化統計資料 등)의 發掘, 考證 및 平價, 整理와 保存, 公開와 利用이라는 여러 단계를 종합, 「文化資源化」하여, 文化資源學의 形成·發達시킬 수 있는 研究의 추진을 設置目的으로 하고 있다. 文化資源學에 관한 高度의 專門性을 가진 人材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教育研究의 內容은 「文化經營學分野」, 「形態資料學分野」, 「文書學分野」, 「文獻學分野」의 4分野로 나누고 있고, 다음과 같이 각 分野의 內容을 說明하고 있다.

- 文化經營學分野：情報 media의 進展에 따른 文化資源 및 各種 文化施設(博物館, 美術館, 圖書館, 文書館, 資料館, 各種 文化Hall 등)의 運用法(調査·評價·政策·經營) 관련 教育研究
- 形態資料學分野：形態資料(畫像, 造形, 古物, 民俗, 藝能 등)를 종합적으로 分析하여 整理·評價·保存·公開하는 技術에 관한 教育研究
- 文書學分野：文書資料를 解讀·整理·保存하여 目錄을 作成하는 技術과 各種 公私文

書を 發見・收集・整理하는 技術에 관한 教育研究

・ 文獻學分野： 文獻(書籍)의 鑑定・保存技術과 寫本・刊本の 成立・傳承을 調査하고, 本文의 異同을 檢討하여 原文을 復元하는 技術에 관한 教育研究.

## 2.2 教育組織으로서의 文化情報學部

文化情報學部는 教育組織으로 文化情報學과는 區別된다. 文化情報學部는 文化情報學의 學習을 통하여 社會的 有用性을 획득하는 教育을 實踐하는 教育組織이다. 教育組織으로서의 文化情報學部の 教育體系는 情報資源의 種別에 의해 分類된다. 文字에 의한 情報로 형성되는 것을 知識情報, 文字에 의하지 않는 情報로 형성되는 것을 知覺情報로하여, 文字性의 영역에 속하는 情報資源을 知識情報資源으로, 非文字性의 영역에 속하는 情報資源을 知識情報資源으로 定義하고 있다. 또한 一回性의 영역에 속하는 情報資源을 Original情報資源으로, 複製性의 영역에 속하는 資源을 複製情報資源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와 같이 知覺情報資源과 知識情報資源, Original情報資源과 複製情報資源이 2分法으로 나누어, 景觀・觀光情報, 映像・音樂情報, Record・Arichives情報, 知識Communication情報의 4코스(course)로 區分하고 있다.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에서는 情報資源을 非文字-文字情報, Original-複製의 두 개의 次元으로 區分하였으나, 다른 次元으로도 區分할 수 있고, 또한 多樣한 情報資源間의 關連性 및 共通性에도 注目할 必要가 있다. 또한 4개의 코스들은 文化情報學의 對象인 情報資源의 형태의 對應하는 것이나, 研究 approach의 分類 또는 情報 mediator의 育成方法論 과는 無關係인 점에도 유의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어, 博物館的 approach는 知覺情報資源 뿐만 아니라 知識情報資源도 그 對象으로 하고 있다. 또한 mass communication적 approach는 知覺情報(映像・音樂)와 知識情報(印刷媒体)에 共通되고 있다. 또한, 教育에 側面에서 보면 圖書館情報學을 基礎로 하는 資料組織, 情報檢索, reference 등은 知識情報 뿐만 아니라 知覺情報의 複製情報資源을 취급할 때에도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分野이다.

文化情報學部の 學科 編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文化情報學科와 知識情報學科의 區分은 文字性을 軸으로 한 分類이다. 만약 複製性을 軸으로 分類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學科 編成이 될 것이다. 學生들의 選擇에 의해 學科나 코스 橫斷的인 學習이 可能한 教育

体系를 만든 것은 文化情報學部の 目的과 教育內容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文化情報學部の 教育을 擔當하는 教員構成은 歷史學, 圖書館情報學, 博物館學, 社會學, 文書館學, 地理學, 心理學, 言語學 등의 mass communication, computer 工學, 音樂學 등 多様な 背景을 가지고 多様な 學問의 方法論으로 情報資源을 研究·教育할 필요가 있다.

文化情報學部の 教育과 文化情報學部に 설치되어 있는 學芸員 및 司書資格課程과의 關係는 文化情報學部に 있어서의 教育의 結果로 資格取得이 可能한 것으로, 學芸員 및 司書 養成이 文化情報學部の 教育目的은 아니다.

文化情報學部 卒業生의 進路는 特定の 기업이나 기관, 전문직으로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情報 mediator로서의 知識과 能力을 가지고 多様な 職業(職種)으로 進出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情報 mediator라고 하는 것은 文化情報學部가 育成하는 學生들의 「專門性」을 定義하는 것으로 特定の 職種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 3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の 教育內容

#### 3.1 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部の 概要

駿河台(스루가다이) 大學은 1987年 4월에 新說된 文科系 종합대학으로 東京都의 근교인 埼玉縣(사이다마 현) 飯能市(한노시)에 위치하고 있다. 學生數는 약 5,200名으로, 學部과정은 法學部, 經濟學部, 文化情報學部, 現代文化學部の 4學부로 구성되고, 大學院의 과정은 法學研究科, 經濟學研究科, 文化情報研究科의 3研究科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연구기관으로 比較法研究所, 經濟研究所, 文化情報學研究所, 教養文化研究所의 4개의 研究所가 設置되어 있다.

1994년에 設置된 文化情報學部는 情報資源 특히 文化情報資源의 流通·利用·保存·管理 등을 다루는 文化情報學을 中心對象으로 하고 있다. “정보는 資源으로, 또한 人類의 共同財産으로, 末末에 伝達해야 할 價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學部の 基本理念으로 하고, 具體적으로는 情報利用者의 需要에 應한 情報의 選擇, 必要정보의 流通, 情報資源의 蓄積·保存에 관한 理論과 技法의 教育과 研究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文化情報學部는 情報科學의 基礎知識·技術을 共通의 基盤으로 하고 文化情報學의 研究對象에 따라 情報資源을 (1) 映像·音樂情報, (2) 景觀·觀光情報, (3) 知識基盤情報, (4) 組織體의 記錄情報의 4개의 分野로 分類하여, 4개의 course(코스)를 두고 있다.

文化情報學部는 文化情報學科와 知識情報學科의 2개 學科로 構成되어 있다. 文化情報學科는 知覺의이고 非文字系의 情報資源을 對象으로, 複數研究分野인 「映像情報 코스」와 唯一 存在分野인 「觀光情報코스」로 나누고 있다. 「映像情報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映像情報자원의 管理를 擔當할 수 있는 人材育成을, 「觀光情報코스」는 異文化에 대한 理解와 景觀환경 保全 및 異文化 Communication을 위한 情報提供을 擔當할 수 있는 人材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知識情報學科는 主로 文字에 의하여 生産·組織化되는 情報資源을 對象으로 하여, 「知識 communication 코스」는 知識基盤情報의 收集·蓄積·提供 기능을 擔當하는 圖書館·情報Center 등에 必要한 人材育成을, 「Record. Archives 코스」는 公的·私的 組織體가 生産한 記錄을 管理·保存하는 기능을 擔當할 Record Manager, Archivist 등의 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文化情報學部の 學生數는 2000年 4月 20日 現在, 1年生 286名, 2年生 241名, 3年生 275名, 4年生 287名으로 計 1,089名(그 중 男子 697名, 女子 392名)이다. 敎育을 擔當하는 敎員數는 專任敎員, 32名으로, 圖書館情報學分野 7名, 情報關連處理分野 6名, 外國語(英語, 第2外國語) 6名, 觀光情報分野 3名, 映像·音樂情報分野 2名, Archives分野 2名, 記錄管理分野 1名, 博物館情報分野 1名, Mass Communication, 心理學, Sports情報 各 1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3學年부터 選擇하게 되는 各 코스의 登錄者數는 2000年 5月 現在, 映像情報코스가 223名, 觀光情報코스 66名이고, 知識 communication코스가 193名, Record. Archives 코스가 62名으로 되어 있다.<表 1> 참조)

資格取得者 數는 1997年 126名, 1998年 112名, 1999年 67名이다.<表 2> 참조)

### 3.2 學部 敎育課程의 構成

敎科課程은 크게 「共通基礎科目群(A群)」, 「外國語科目群(B群)」, 「情報關連科目群(C群)」,

「基幹科目群(D群)」, 「專攻科目群(E群)」의 5개 群으로 構成되어 있다.

<表 1> 각 코스별 등록자수

學科 코스 學年	文化情報學科		知識情報學科	
	映像情報	觀光情報	知識Communication	Record Archives
	코스	코스	코스	코스
3年	111	32	97	28
4年	112	34	96	34
計	223	66	193	62

<表 2> 資格取得者數

	司書資格	學芸員資格
1997年	42	84
1998年	63	49
1999年	44	23
2000年	70	57

「共通基礎科目群(A群)」은 (1) Orientation 科目(1年次), (2) 基礎科目(1·2年次), (3) 關連基礎科目(1·2年次)로 나누어져 있다. 「外國語科目群(B群)」은 I 群(英語), II 群(第二外國語)으로 나누어져 있다. 「情報關連科目群(C 群)」은 情報基礎科目(1·2年次)과 情報應用科目(3·4年次)으로 나누어져 있다.

「基幹科目群(D群)」은 共通基幹科目(2年次), 學部基幹科目(2年次)과 學科基幹科目(2年次)으로 構成되어 있다. 「專攻科目群(E群)」은 專攻科目(3·4年次)과 演習科目(3·4年次)으로 構成되어 各코스別로 나누어져 있다.

學期는 前期(봄 學期) 後期(가을 學期)의 2學期制이고, 1科目에 해당하는 單位(學點)는 2單位이다. 1科目은 週1回 90分 授業으로 한 學期 13回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Seminar I(3年次)·II(4年次)는 年間科目으로 4單位이다.

卒業要件으로 124單位以上을 修得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共通基幹科目: 34單位以上, 外國語科目群: 16單位以上, 情報關連科目群: 14單位以上, 基幹科目群: 20單位以上, 專攻科

目群: 40單位以上을 修得하여야 한다.

### 3.2.1 各 科目群의 構成 및 特徵

#### 1) 共通 基礎科目群(A群) (1·2年次 履修科目)

##### 1).1 Orientation 科目

1年次 前期(봄 學期)를 Orientation 學期로 정하고, 新入生을 위하여 大學에서 必要한 基礎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Orientation 科目으로 5科目을 開設, 「資料檢索法」, 「研究調査法」, 「論文執筆法」, 「Presentation 법」은 봄 학기에 「pre-seminar」는 가을 학기에 개강하고 있다.

「資料檢索法」, 「研究調査法」, 「論文執筆法」은 大學에서의 學習·研究에 必要한 資料·情報의 檢索 및 整理方法, 調査 및 研究에 관한 方法論, Report 및 論文作成 등에 관한 基礎的인 知識과 技法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Presentation 法」은 자기 자신을 表現·傳達하는 方法, communication 方法 등을 습득하도록 준비되었다. 1年次 가을 학기에 개강하는 「Pre-seminar」는 基礎的인 演習科目으로 되었다.

Orientation 科目은 3科目·6單位以上 修得하여야 한다.

##### 1).2 基礎科目 및 關聯基礎科目(1·2年次 履修科目)

基礎科目은 專門科目과 관련이 깊은 科目으로 構成되어 있고, 關連基礎科目은 基礎科目에 關連된 주변 과목으로 넓은 영역의 科目들이 배치되고 있다.

文化情報學의 教育과 研究에 對象은 情報資源으로, 情報資源의 價値는 社會的·歷史的·文化的 背景에 의해 變化되는 性質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背景을 理解하기 위하여 基礎科目·關連基礎科目 中에는 「文化情報社會史(I)(II)」, 「科學技術史(I)(II)」, 「行政史」, 「産業史」 등 歷史에 관한 科目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文化情報學의 對象인 情報資源은 多樣한 여러 學問영역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學問영역의 成果를 理解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하여 「情報 관련 法學」, 「情報 관련 經濟學」, 「情報 관련 統計學」, 「言語學」, 「文化人類學」, 「人類生物學」, 「認知心理學」 등이 개설되어 있고, 또한 情報 그 자체에 관련된 科目으로는 「情報社會論」, 「Communication 論」, 「情報media 論理」 등이 개설되어 있다. 複數의 學問領域을 융합된 종합적인 科目으로 「比較文化論」, 「行動科學」, 「system科學」, 「現代思想」 등이 포함되어 있다.

2年次 개설 科目인 「基礎Seminar」는 3年次에 시작되는 「Seminar (I)」의 入門的인 성

격을 갖고 있다. 基礎科目은 7科目・14單位以上, 關連基礎科目도 7科目・14單位以上 計 14科目・28單位以上을 修得하도록 되어 있다. (<表 3> 參照)

<表 3> 共通基礎科目群

区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ORIENTATION 科目	資料檢索法 (1) 論文執筆法 (1) 研究調査法 (1) PRESENTATION 法 (1) PRE-SEMINAR (1)	合計6單位以上
基礎科目	文化情報社会史 I (1.2) 文化情報社会史 II (1.2) 言語学 (1.2) 行動科学 (1.2) 比較文化論 (1.2) 情報関連法学 (1.2) 情報関連経済学 (1.2) 情報化社会論 (1.2) 文化人類学 (1.2) 科学技術史 I (1.2) 科学技術史 II (1.2) SYSTEM 科学 (1.2) 行政史 (1.2) 産業史 (1.2) COMMUNICATION (1.2) 情報 MEDIA 倫理 (1.2)	合計 14 單位以上
關連基礎科目	現代思想 (1.2) 芸術文化論 (1.2) 文化地理学 (1.2) 情報関連統計学 (1.2) 行政管理論 (1.2) 地球環境論 (1.2) 認知心理学 (1.2) 人類生物学 (1.2) 情報関連数学 (1.2) 健康科学論 (1.2) SPORTS 科学実習 (1) SPORTS 科学演習 (2) 基礎 SEMINAR (2)	SPORTS 科学実習 (2單位)必修
共通基礎科目群 (A群) 合計		34單位以上

2) 外國語科目群(B群) (1-4次 履修科目)

文化情報學의 學習 및 研究에는 文化理解와 情報理用을 위하여 外國語 能力이 要求된다. 英語(I群) 이외에 第2外國語(II群)는 독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留學生對象)의 6개국語 중 선택필수 과목으로 2年次부터 개설되어 있다. 1年次 가을 학기에 「外國語入門」 科目이 개설되어 있어 各 言語의 特征 및 言語를 배움으로 理解할 수 있는 文化에 對한 入門의인 說明으로 外國語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外國語科目은 1科目・1單位로, 16科目・16單位以上을 修得하도록 되어 있다. (<表 4> 參照)

3) 情報關連科目群(C群) (1-4年次 履修科目)

情報活用能力을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情報處理 관련의 강의 및 實習科目을 17科目개설 하고, 入學時에 全學生의 Note 型 personal computer 購入이 義務化 되어 있다. 情報基礎科目으로는, 情報處理概論(I)(II), 情報處實習(I)(II)이 一年次에, 情報處理實習(III)(IV)

가 2年次에 개설되어 있다.

<表 4> 外國語科目群 (B群)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I 群	英 語 I a (1) 英 語 I b (1)	英語 I a·b必修 合計8單位以上
	英 語 II a (1) 英 語 II b (1)	
	英 語 III a (1) 英 語 III b (1)	
	英 語 IV a (2) 英 語 IV b (2)	
	英 語 V a (2) 英 語 V b (2)	
	英 語 A (3.4) 英 語 B (3.4)	
	英 語 C (3.4) 英 語 D (3.4)	
	海外語学研修A (1~4)	
II 群	外国語入門 (1) 日本語入門 (1)	独逸語·仏語·中國語·韓國語·Spain語·日本語、中1個国語選択 合計4單位以上
	海外語学研修B (2~4)	
	独逸語 I a (2) 独逸語 I b (2)	
	独逸語 II a (2) 独逸語 II b (2)	
	独逸語 III a (3.4) 独逸語 III b (3.4)	
	仏語 I a (2) 仏語 I b (2)	
	仏語 II a (2) 仏語 II b (2)	
	仏語 III a (3.4) 仏語 III b (3.4)	
	中國語 I a (2) 中國語 I b (2)	
	中國語 II a (2) 中國語 II b (2)	
	中國語 III a (3.4) 中國語 III b (3.4)	
	韓國語 I a (2) 韓國語 I b (2)	
	韓國語 II a (2) 韓國語 II b (2)	
	韓國語 III a (3.4) 韓國語 III b (3.4)	
Spain語 I a (2) Spain語 I b (2)		
Spain語 II a (2) Spain語 II b (2)		
Spain語 III a (3.4) Spain語 III b (3.4)		
日本語 I a (1) 日本語 I b (1)		
日本語 II a (2) 日本語 II b (2)		
日本語 III a (3.4) 日本語 III b (3.4)		
日本語 III a (3.4) 日本語 III b (3.4)		
外國語科目群 (B群) 合計		16單位以上

情報応用科目은 3·4年次 개설과목으로 「情報시스템론」, 「정보시스템설계론」, 「데이터베이스론」, 「情報 Network論」, 「人工之能論」, 「System 監査論」, 「Security 分析論」, 「知識 Base 論」 등 10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단순한 情報處理技術의 習得에 그치지 않고, 高度의 情報관련 理論과 技術을 習得하도록 되어 있다. 情報관련科目은 9科目·14單位以上 修得하도록 되어 있다. (<表 5> 參照)

4) 基幹科目群(D群) (2年次 履修科目)

文化情報學 分野의 專攻科目은 3年次부터 始作되나, 文化情報學 學習에 必要한 基本 領域의 科目은 2年次에 개설하고 있다. 基幹科目群은 2學科 共通의 「共通基幹科目」, 「學部 基幹科目」과 各 學科別 「學科基幹科目」으로 構成되어 있다. 基幹科目群에서는 10科目·

20單位以上을 修得하도록 되어 있다.

<表 5> 情報關連科目群 (C群)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情報 基礎 科目	情報處理概論 I (1)    情報處理概論 II (1) 情報處理實習 I (1)    情報處理實習 II (1) 情報處理實習 III (2)    情報處理實習 IV (2) 応用情報處理實習 (3.4)	情報處理概論 I 及 情報處理實習 I 必修 合計6單位以上
情報 応用 科目	情報 SYSTEM 論 (3.4)    情報 SYSTEM 設計論 (3.4) DATABASE 論 (3.4)    DATABASE 設計論 (3.4) 情報 NETWORK 論 (3.4)    人工知能論 (3.4) T E L E - (3.4)    SECURITY 分析論 (3.4) COMMUNICATION 論    知識 B A S E 論 (3.4) SYSTEM 監査論 (3.4)	
情報關連科目群 (C群) 合計		14單位以上

#### 4.1 共通 基幹科目

文化情報學의 基本的인 科目으로 「文化情報學經論」 「情報管理概論」 「情報 media 概論」 이 개설되어, 이 중 2科目 · 4單位以上을 修得하도록 되어 있다.

#### 4.2 學部基幹科目

文化情報學部の 基幹科目으로, 現代社會에 있어서 情報의 具體的인 機能에 관련된 「 mass media論」 「情報 Security論」 「編集技術論」 「知的所有權論」 등과, 情報와 組織의 문제에 相關하여 各 코스에 必要한 基礎的인 科目으로 「經營System論」 「資料組織論」 등 10 개 科目이 개설되어 있다.

#### 4.3 學科 基幹科目

① 文化情報學科 基幹科目 : 費文字情報에 相關한 mediation의 基本原理로서 「感覺情報 論」이 필수로 되어 있고, 3年次에 선택하게 되는 文化情報學科 소속의 2코스에 必要한 「觀光情報學」 「博物館情報學」 등 觀光情報 및 博物館情報에 相關된 概論的인 科目이 개설되어 있다.

② 知識情報學科 基幹科目 : 文字情報資源의 基本原理로서 「知識情報資源論」이 필수로 되어 있고, 3年次에 선택하게 되는 知識情報學科소속의 2코스에 必要한 「圖書館情報學, 「記錄情報學」 등 圖書·文書의 管理·保存에 관한 科目과 情報資料·情報檢索에 관한 科目이 개설되어 있다.

#### 5) 專攻科目群 (E群) (3·4 年次履修科目)

3年次부터 文化情報學科 學生은 「映像情報코스」 또는 「觀光情報코스」를 선택하게 되고, 知識情報學科 學生은 「知識 communication 코스」또는「Record·Archives 코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各 코스에 定員은 없어, 學生 자신의 關心과 進路에 따라 願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코스에서도 學部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科目을 履修할 수 있다.

專攻科目群은 專攻科目과 演習科目으로 구성되어 있고, 演習科目(Seminar (I)(II)) 8單位를 포함하여, 40單位以上을 修得하도록 되어 있다.

##### 5).1.1 文化情報學科 映像情報코스:

專攻科目으로 映像·音樂情報의 media에 관한 理論的 科目으로 「映像 media論」, 「音樂 media論」이 있고, 情報의 蓄積·檢索·流通·保存 등에 관한 「映像資料論」, 「音樂資料論」, 「映像 Archives論」, 「音樂 Archives論」 등이 개설되어 있다.

表現에 관한 科目으로 「創作過程論」, 「藝術經營論」, 「展示表現論」등, 情報환경으로서 藝術의 환경에 관한 科目으로 「환경예술론」, 「Computer Art」, 「Performance 論」, media 관련 科目으로 「multi-media 論」, 「情報産業論」 등이 개설되어 있다.

演習科目으로는 필수과목인 「Seminar (I)(II)」와 선택과목인 「卒業論文」이 있다.(<表 6> 參照)

##### 5).1.2 文化情報學科 觀光情報 코스:

專攻科目으로 人間의 觀光活動에 관련된 「觀光經有學」, 「Hospitality 經營論」, 「觀光行動論」, 「觀光産業論」, 「國際觀光論」이 개설되어 있다. 情報資源에 관한 科目으로 「觀光情報資源論」, 「交通情報論」, 「地域開發論」 등, 觀光情報의 流通에 관한 科目으로 「情報産業論」, 「情報環境論」, 「User study」 등, 觀光行動에 관한 科目으로 「Recreation 論」, 「比較宗敎學」 등이 개설되어 있다.(<表 7> 參照)

<表 6> 映像情報 Course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基 幹 科 目 群	共 通 基 幹 目 群	文化情報学総論 ② 情報管理概論 ② 情報 MEDIA 概論 ②	合計4単位以上
	学 部 基 幹 目 群	資料学総論I(目録分類論) ② 情報 SECURITY 論 ② MASS MEDIA 論 ② 経営 SYSTEM 論 ② 会計学原理 ② 制作技術論 ② 編集技術論 ② SPORTS 情報資源論 ② 知的的所有権論 ② 映像情報論 ②	合計4単位以上
	学 科 基 幹 目 群	感觉情報資源論 ② 観光情報学 ② 博物館情報学 ② 観光地域論 ② 都市空間論 ② 消費者心理学 ②	感觉情報資源論 必修 合計4単位以上
	基幹科目群 (D群) 合計		20単位以上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専 攻 科 目 群	専 攻 科 目	音響 MEDIA 論 ③,④ 映像 MEDIA 論 ③,④ 音響資料論 ③,④ 映像資料論 ③,④ 音響 ARCHIVES 論 ③,④ 映像 ARCHIVES 論 ③,④ 制作過程論 ③,④ 芸術経営論 ③,④ 展示表現論 ③,④ COMPUTER ART ③,④ 情報産業論 ③,④ MULTI-MEDIA 論 ③,④ PERFORMANCE 論 ③,④ 余暇社会学 ③,④ 出版流通論 ③,④ 環境芸術論 ③,④	合計 10 単位以上
	演 習 科 目 等	SEMINARI ③ SEMINARI II ④ 卒業論文 ④	SEMINARI・II 必修 合計8単位以上
専攻科目群 (E群) 合計		40単位以上	

<表 7> 観光情報 Course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基 幹 科 目 群	共 通 基 幹 目 群	文化情報学総論 ② 情報管理概論 ② 情報 MEDIA 概論 ②	合計4単位以上
	学 部 基 幹 目 群	資料学総論I(目録分類論) ② 情報 SECURITY 論 ② MASS MEDIA 論 ② 経営 SYSTEM 論 ② 会計学原理 ② 制作技術論 ② 編集技術論 ② SPORTS 情報資源論 ② 知的的所有権論 ② 映像情報論 ②	合計4単位以上
	学 科 基 幹 目 群	感觉情報資源論 ② 観光情報学 ② 博物館情報学 ② 観光地域論 ② 都市空間論 ② 消費者心理学 ②	感觉情報資源論 必修 合計4単位以上
	基幹科目群 (D群) 合計		20単位以上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専 攻 科 目 群	専 攻 科 目	観光経済学 ③,④ 観光情報資源論 ③,④ 余暇社会学 ③,④ HOSPITALITY 経営論 ③,④ 観光行動論 ③,④ 交通情報論 ③,④ 観光産業論 ③,④ 地域開発論 ③,④ 国際観光論 ③,④ 産業考古学 ③,④ USER STUDY 論 ③,④ 情報環境論 ③,④ 比較宗教学 ③,④ RECREATION 論 ③,④ 文化環境設計論 ③,④ 情報産業論 ③,④	合計 10 単位以上
	演 習 科 目 等	SEMINARI ③ SEMINARI II ④ 卒業論文 ④	SEMINARI・II 必修 合計8単位以上
専攻科目群 (E群) 合計		40単位以上	

5)2.1 知識情報學科 知識 Communication 코스 :

專攻科目으로는 文字情報字源의 組織·利用·提供에 관한 科目으로 「專門資料論」 「資料組織論」 「檢索技術論」 「情報分析論」 「參考調查論」 등, 管理·活動등에 관련된 科目으로 「圖書館·情報Center 經營論」 「情報Service論」 등이 개설되어 있다.

情報環境에 관련된 科目으로 「情報環境論」 「情報資源施設政策論」 등 圖書·資料·情報 관련의 「藏書構成論」 「書誌學」 「計量情報學」 등이 개설되어 있다. (<表 8> 參照)

5)2.2 知識情報學科 Record Achives 코스.

專攻科目으로는 各種媒體에 의한 紀錄의 作成·流通·蓄積·檢索에 관한 科目으로 「組織記憶論」 「企業紀錄論」 등, 紀錄의 保存 등의 절차·관리 등에 관련된 科目으로 「office management」 「記錄媒體修復·複製論」 등, 紀錄環境에 관한 科目으로 「文化환경설계론」 「환경예술론」 등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Record·Achives를 취급하기 위한 基礎科目으로 「厂史資料論」 「古書体講讀」 등이 개설되어 있다. (<表 9> 參照)

<表 8> 지식 커뮤니케이션 코스

区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基 幹 科 目 群	共 通 基 幹 科 目	文化情報學總論 ② 情報管理概論 ② 情報 MEDIA 概論 ②	合計4單位以上
	學 部 基 幹 科 目	資料組織論I(目錄分類論) ② 情報 SECURITY 論 ② MASS MEDIA 論 ② 經營 SYSTEM 論 ② 會計學原理 ② 制作技術論 ② 編集技術論 ② SPORTS 情報資源論 ② 知的的所有權論 ② 映像情報論 ②	合計4單位以上
	學 科 基 幹 科 目	知識情報資源論 ② 記錄媒體保存論 ② 圖書館情報學 ② 記錄情報學 ② 情報資料論 ② 情報檢索論 ②	知識情報資源論 必修 合計4單位以上
	基幹科目群 (D群) 合計		20單位以上

区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專 攻 科 目 群	專 攻 科 目	出版流通論 (3.4) 圖書館 CENTER 經營論 (3.4) 情報分析論 (3.4) 資料組織論II(索引抄録論) (3.4) 情報 SERVICE 論 (3.4) 知識社會學 (3.4) 參考調查論 (3.4) 專門資料論 (3.4) 藏書構築論 (3.4) 情報資源施設政策論 (3.4) 書誌學 (3.4) 計量情報學 (3.4) 情報施設 SYSTEM 管理論 (3.4) 檢索 SERVICE 論 (3.4) 檢索技術論 (3.4) 情報環境論 (3.4)	合計 10 單位以上
	演 習 科 目 等	SEMINAR I ③ SEMINAR II ④ 卒業論文 ④	SEMINAR I - II 必修 合計8單位以上
專攻科目群 (E群) 合計		40單位以上	

<表 9> 레코드·아카이브스 코스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基 幹 科 目 群	共 基 科 目	文化情報学総論 ② 情報 MEDIA 概論 ②	情報管理概論 ②	合計4単位以上
	学 部 基 科 目	資料概論I(目録分類論) ② MASS MEDIA 論 ② 会計学原理 ② 編集技術論 ② 知的的所有權論 ②	情報 SECURITY 論 ② 経営 SYSTEM 論 ② 制作技術論 ② SPORTS 情報資源論 ② 映像情報論 ②	合計4単位以上
	学 科 基 科 目	知識情報資源論 ② 図書館情報学 ② 情報資料論 ②	記録媒体保存論 ② 記録情報学 ② 情報検索論 ②	知識情報資源論 必修 合計4単位以上
基幹科目群 (D群) 合計				20単位以上

区 分		授業科目 (配当年次)		卒業要件
専 攻 科 目 群	専 攻 科 目	記録管理論 (3.4) 史料管理論 (3.4) 行政記録論 (3.4) 記録媒体修復・複製論 (3.4) 環境芸術論 (3.4) 歴史資料論II(非文字記録) (3.4) 古書体講読II(近代) (3.4) 参考調査論 (3.4)	OFFICE MANAGEMENT 論 (3.4) 企業記録論 (3.4) 組織記憶論 (3.4) 文化環境設計論 (3.4) 歴史資料論I(文字記録) (3.4) 古書体講読I(前近代) (3.4) 検索 SERVICE 論 (3.4) 産業考古学 (3.4)	合計 10 単位以上
	演 習 科 目 等	SEMINAR I ③ 卒業論文 ④	SEMINAR II ④	SEMINAR I・II 必修 合計8単位以上
専攻科目群 (E群) 合計				40単位以上

5)2.3 演習科目 :

Seminar I(3年次 필수)·Seminar II(4年次)와 卒業論文의 3科目이 개설되어 있다. Seminar는 15名 정도로 구성된 少人數 Class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自發的인 思考能力, 調査能力, 表現能力의 습득은 目標로 하고 있다. 卒業論文은 Seminar라는 독립된 선택과목으로, 學部의 審査基準에 통과되어야 한다.

3.3 文化情報學部 資格課程 (司書·學芸員)

文化情報學部에는 司書資格과 學芸員 資格을 取得하고자 하는 學生들을 위해 資格課程을 설치하고 있다. 資格取得을 위해 必要한 科目(圖書館法施行規則·博物館法施行規則에 定해진 科目)의 대부분이 學部·學科의 基幹科目 또는 専攻科目으로 개설되어 있어, 文化情報學科·知識情報學科 學生들은 두 가지 資格을 쉽게 取得할 수 있다.

### 3.3.1 司書課程

司書資格에 관하여는 圖書館法 第5條에 “大學을 卒業한 者로 大學에서 圖書館에 관한 科目을 履修한 者”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大學에서는 司書資格을 取得하기 위한 條件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1) 本 大學에서 卒業에 必要한 單位를 修得하고 學士學位를 가진 者.
- 2) 本 大學에 설치된 圖書館關連科目 중, 필수과목을 15科目・30單位, 選擇科目을 2科目・4單位以上, 計 17科目・43單位以上을 修得할 것.

司書課程을 위해 개설한 科目으로, ①生涯學習概論, ②資源目錄法演習, ③資料分類法演習, ④參考業務演習, ⑤兒童Service論, ⑥圖書館實習의 演習・實習 科目이 개설되어 있고, 이들 科目은 卒業要件單位에 포함되지 않는다. (<表 10> 參照)

<表 10> 司書課程科目 (圖書館法及圖書館法施行規則)

區分	圖書館法施行規則 科目	單位	本學科目	單位	配當 年次	必要 單位數
必修 科目	生涯學習概論	1	生涯學習概論	2	1	15科目 30單位 必修
	圖書館概論	2	圖書館情報學	2	2	
	圖書館經營論	1	圖書館・情報 Center 經營論	2	3・4	
	圖書館 Service 論	2	情報 Service 論	2	3・4	
	情報 Service 論	2	參考調查論	2	3・4	
	Reference Service 演習	1	參考業務演習	2	3・4	
	情報檢索演習	1	檢索技術論	2	3・4	
	圖書館資料論	2	情報資料論	2	2	
	專門資料論	1	專門資料論	2	3・4	
	資料組織概說	2	資料組織論 I	2	2	
			資料組織論 II	2	3・4	
	資料組織演習	2	資料目錄法演習	2	3・4	
			資料分類法演習	2	3・4	
兒童 Service 論	1	兒童 Service 論	2	1		
乙群	圖書館特論	1	圖書館實習	2	3・4	※2科目 4單位 以上
選擇 科目	圖書及圖書館史	1	文化情報社會史 II	2	1・2	
			書誌學	2	3・4	
	資料特論	1	記錄媒体保存論	2	2	
			歷史資料論 I	2	3・4	
			音響資料論	2	3・4	
			映像資料論	2	3・4	
	史料管理論	2	3・4			
Communication 論	1	Mass Media 論	2	2		
情報機器論	1	Multi-Media 論	2	3・4		

### 3.3.2. 學芸員 課程

學芸員 資格에 關係서는 博物館法 第5條에 “學士學位를 가진 者로서 大學에서 文部省令으로 定한 博物館에 關한 科目의 單位를 修得한 者”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本 大學에서는 學芸員 資格을 取得하기 위한 條件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1) 本 大學에서 卒業에 必要한 單位를 修得하고 學士學位를 가진 者.
- 2) 本 大學에 設치된 博物館에 關한 科目 中, 必須科目 8科目・18單位, 選擇科目 I 群 3 과목・6單位以上, II 群 3科目・6單位以上, 計 30單位以上을 修得할 것.

學芸員 課程을 위해 設치되어 있는 科目은 ①生涯學習概論, ②博物館概論, ③博物館實習, ④教育學概論(I)로, 이 科目들은 卒業要件單位에 포함되지 않는다.<表 11> 參照)

<表 11> 學芸員科程科目 (博物館法及博物館法施行規則)

(博物館法及博物館法施行規則)						
區分	博物館法施行規則 科目	單位	本學 科目	單位	配當年次	必要 單位數
必修 科目	生涯學習概論	1	生涯學習概論	2	1	8科目 18單位 必
	博物館概論	2	博物館概論	2	1	
	博物館經營論	1	藝術經營論	2	3・4	
	博物館資料論	2	顯示表現論	2	3・4	
	博物館情報論	1	博物館情報學	2	2	
	博物館實習	3	博物館實習	4	3・4	
	視聽覺教育 Media 論	1	Multi-Media 論	2	3・4	
	教育學概論	1	教育學概論 I	2	1	
選擇 科目	I 群 資料・情報管理系科目		文化情報社會史 I	2	1・2	3科目 6單位 以上
			文化情報社會史 II	2	1・2	
			記錄媒體保存論	2	2	
			史料管理論	2	3・4	
			音響資料論	2	3・4	
			映像資料論	2	3・4	
			記錄媒體修復・複製論	2	3・4	
			Data-Base 論	2	3・4	
			Data-Base 設計論	2	3・4	
			情報 Network 論	2	3・4	
II 群 人文・自然科學系科目			歷史資料論 I	2	3・4	3科目 6單位 以上
			歷史資料論 II	2	3・4	
			環境藝術論	2	3・4	
			藝術文化論	2	1・2	
			比較文化論	2	1・2	
			文化人類學	2	1・2	
			科學技術史 I	2	1・2	
			科學技術史 II	2	1・2	
地球環境論	2	1・2				
人類生物學	2	1・2				

### 3.4 大學院 文化情報學 研究科

1999年 新設된 大學院 과정은 文化情報學을 基本으로 하여 各 分野의 記錄管理 專門家 및 研究者의 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①演習科目, ②必修特殊科目, ③選擇講義科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必修特殊科目으로 ①文化情報學特殊講義, ②研究調査法, ③情報System特殊研究, ④情報Security特殊研究의 4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選擇講義科目으로는 記錄管理論特論, 記錄史料情報學特論, 電子記錄論特論, 情報資源管理論特論, Office management 特論, 行政資料論特論, 電子圖書館特論 등 20여 科目이 개설되어 있다.

演習·研究지도(2年間 8單位)를 제외한 全科目이 1學期·2單位科目으로 되어 있다. 修士(碩士)學位 取得을 위해서는, 演習科目 8單位, 필수特殊科目 4科目·8單位, 선택 講義科目 8科目·16單位以上, 計 32單位以上 修得하고, 修士論文을 提出하여 審査에 통과하고, 最終試驗에 合格해야 한다. (<表 12> 參照)

## 4 今後의 課程과 展望

記錄管理學은 複合的이고 새로운 分野로, 學問으로서 本質的으로 確立된 段階로는 볼 수 없으나 앞으로 情報社會의 基盤을 형성하고, 새로운 文化·産業 등의 育成·發展에 불가결한 學問領域이므로, 記錄管理學의 教育·研究體制의 確立이 무엇보다도 時急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大學에 있어서 記錄管理學 教育은 大學教育으로서의 基礎的·理論的인 內容과, 專門職으로서의 實用的·技術的 內容을 필요로 한다. 組織的인 교과과정 안에서 專門職으로서의 諸機能을 수행하기에 必要한 知識과 技術을 가르침으로 多樣한 情報環境에 대응할 수 있는 記錄管理專門職을 養成하는 것이다.

記錄管理學教育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 文書館 資料館 博物館 圖書館 情報 Center 등 관련기관의 社會的 位置, 專門職의 業務內容, 教育機能의 狀態 등 直接的인 要因과, 教育環境 教育制度와 方法 및 社會 全般的인 教育水準 등을 間接的인 要因으로 들 수 있다.

<表 12> 碩士學位取得 單位

	授業科目 名称	配当 年次	單位數·時間數			備考
			必修	選択	自由	
授 業 科 目 概 要	(文化情報学研究科文化情報学専攻) 演習科目 文化情報学演習	1・2	8			演習科目 8單位必修。 必修特殊科目、 8單位必修。 選択講義科 目16單位以 上、計32單位 以上修得。 修士論文提 出、最終試験 (口頭試問)合 格
	必修特殊科目					
	文化情報学特殊講義	1・2	2			
	研究調査法	1・2	2			
	情報 System 特殊研究	1・2	2			
	情報 Security 特殊研究	1・2	2			
	選択講義科目、	1・2		2		
	情報応用技術特殊研究	1・2		2		
	記録史料情報学特論	1・2		2		
	図書館情報学特論	1・2		2		
	記録管理論特論	1・2		2		
	博物館情報学特論	1・2		2		
	電子記録論特論	1・2		2		
	電子図書館論特論	1・2		2		
	情報 Media 倫理特論	1・2		2		
	行政資料論特論	1・2		2		
	Office Management 特論	1・2		2		
	政治文化特論	1・2		2		
	情報検索論特論	1・2		2		
	情報資源管理論特論	1・2		2		
	情報 Media 論特論	1・2		2		
	Mass Media 論特論	1・2		2		
	映像資料管理論特論	1・2		2		
	音響資料管理論特論	1・2		2		
	景観観光情報論特論	1・2		2		
	文化地理情報論特論	1・2		2		
美術情報資源論特論	1・2		2			

日本에 있어서 記錄管理學 教育의 問題點 및 課題를 다음과 같이 要約·整理할 수 있다.

1) 關連 各 分野와의 結合 및 調和 :

文書館學 博物館學 圖書館情報學 등 關連分野를 統合·調和시킨 教科課程을 構成할 必要가 있다.

2) 專門科目 및 關連科目數의 增加 :

복합적인 학문 분야로 專門科目 및 關連科目(分野別 關連科目 및 情報技術 關連과 經營管理分野 등)數가 增加함에 따라 專門職 教育으로서의 教育期間과 時間이 不足하다.

3) 專門職 教育으로서 教育과 訓練의 Balance 問題 :

實際的 學問인 記錄管理學은 教育機關과 現場(敎員과 專門職)과의 밀접한 關係가 必要하다. 記錄管理學 教育은 基礎的인 知識·技術의 습득과 理論的·科學的인 思考能力과 學術研究能力이 必要하다. 또한 現場에 있어서 실무수행능력·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具體的·實用的인 技術·知識을 습득하기 위한 訓練이 必要하다.

4) 關連 教科書 不足問題 :

5) 卒業生의 就職 問題 :

6) 繼續教育의 問題 :

7) 類似 명칭의 學部·學科 問題 :

8) 敎員의 不足(質的·量的) 問題 :

教育의 質은 1차적으로 教育擔當者의 能力과 熱意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教育擔當者의 資質은 記錄管理學 教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分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基本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敎育문제와 敎員의 質의 문제는 質的 문제뿐만 아니라 量的인 측면도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겠다. 敎育水準 向上을 위한 研究體制의 確立은 물론이고 大學院에서 研究者·教育擔當者 양성을 위한 協力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記錄管理 分野의 教育은 各 나라의 社會的·文化的·經濟的 環境 및 敎育制度에 따라 敎育과정·內容·資格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다른 점도 있으나,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各國의 社會的·技術的 背景과 現在에 적합한 記錄管理學의 敎育이 必要하다. 敎育目標에 따라 各 大學에서 적합한 敎育내용, 敎科과정 등에 대한 계속적인 研究와 改善을 해

나가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국가 次元의 종합적인 努力과 아울러 國際的인 理解와 協力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1. 安澤秀一. 1994. 情報資源의 有效化 - 記録管理學의 位置付け.  
Records Management(日本記録管理學會誌). No.21. p.1~3.
2. 安澤秀一. 1997. 記録管理教育と専門職 養成: 文書館教育の立場から  
Records Management(日本記録管理學會誌). No. 33. p.59~63.
3. 高山正也. 1997. わが國のアーキビストの養成計劃 : 國立公文書館の構想とその問題  
點. Records Management(日本記録管理學會誌). No. 33. p.1~8.
4. 高山正也. 1997. 専門職としての記録管理の可能性とその教育のありかた.  
Records Management(日本記録管理學會誌). No. 33. p.51~55.
5. 安藤正人. 1998. 記録史料學と現代 : 東京. 吉川弘文館. 352 p.
6. 安藤正人. 2000. アジアのアーキビスト教育 : 最近の狀況  
Records Management(日本記録管理學會誌). No. 40. p.27~34.
7. 金容媛. 1990. 日本의 도서관정보학 교육. 情報管理學會誌(韓國情報管理學會). Vol.  
7. No.2. p.78~93.
8. Kim, Yong Won. 1998.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Education in Japan.  
World Libraries. Vol. 8. no. 2. p.39~49.
9.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史料管理學研修會講義 要綱. 平成11(1999).
10.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院研究科. 文化資源學研究 專攻概要. 2000. 6 p.
11. 駿河台大學案内「Sungadai 2000」1999. 120 p.
12. 駿河台大學文化情報學部履修Guide2000年度. 2000. 171 p.
13. 駿河台大學文化情報學部資格課程履修Guide2000年度. 2000. 139 p.
14. 駿河台大學文化情報學部Syllabus2000年度. 2000. 579 p.
15. 駿河台大學大學院文化情報學研究科要覽2000年度. 2000. 142 p.

關聯 URL :

駿河台大學 : <http://www.surugadai.ac.jp>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 研究科 文化資源學 研究專攻:

<http://www.l.u-tokyo.ac.jp/CR/overview.html>

記錄管理學會 : <http://wwwsoc.nacsis.ac.jp/rmsj/index.html>

(원고접수일: 2000. 5. 30 / 발표후 수정원고 접수일 2000. 10. 30)

K C I